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테스트 시장 키운다

‘넷이벤트’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보장 위해 측정·평가 중요” 주장 제기

2009-06-04/오후 5:42:41/김선애 기자

세계적인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기업과 시장조사 기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례행사 ‘넷이벤트 2009 아시아 태평양 기자간담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네트워크 측정, 테스트, 표준화 시장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넷이벤트의 첫째날 시장조사기관 양키그룹(Yankee Group)의 카밀 멘들러(Camille Mendler) 글로벌 서비스 전략 부사장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테스트와 측정(Test & Measurement: The New Business Imperative)’이라는 패널토론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측정과 테스트, 모니터링이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품질보장·과금 위해 테스트·측정 이슈 부상

카밀 부사장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지는 동시에 개인이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크게 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네트워크 품질보장과 과금을 위해 테스트와 측정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적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특히 NGN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 품질과 속도의 문제가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를 측정하고 테스트하며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멘들러 부사장은 “네트워크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대역 네트워크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VoIP, IPTV, 보안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기업들은 외부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된 전문분야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프레즌스, BRICS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

한편 이날 행사에서 텔레프리전스 시장 전망과 그린IT, NGN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한 강연이 마련됐다.

서닐 조시(Sunil Joshi) 타타커뮤니케이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대표는 기조강연 '신흥시장의 중요한 기회(The Potential opportunity of emerging markets)'를 통해 "BRICS로 대표되는 신흥시장에서 텔레프레즌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강력한 규제완화와 투자를 통해 미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DC의 팀 딜론(Tim Dillon)은 '그린IT의 중요성(How important is Green IT)'을 통해 "그린IT는 에너지를 비롯한 데이터센터 비용절감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NGN 표준화에 대해 MEF의 케빈 베이천(Kevin Vachon)은 "NGN 표준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개개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